

0.01초 만에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워크스루서 결제·재택근무 인증 ‘척척’

2021 주목받을 IT 신기술

AI 얼굴인식·S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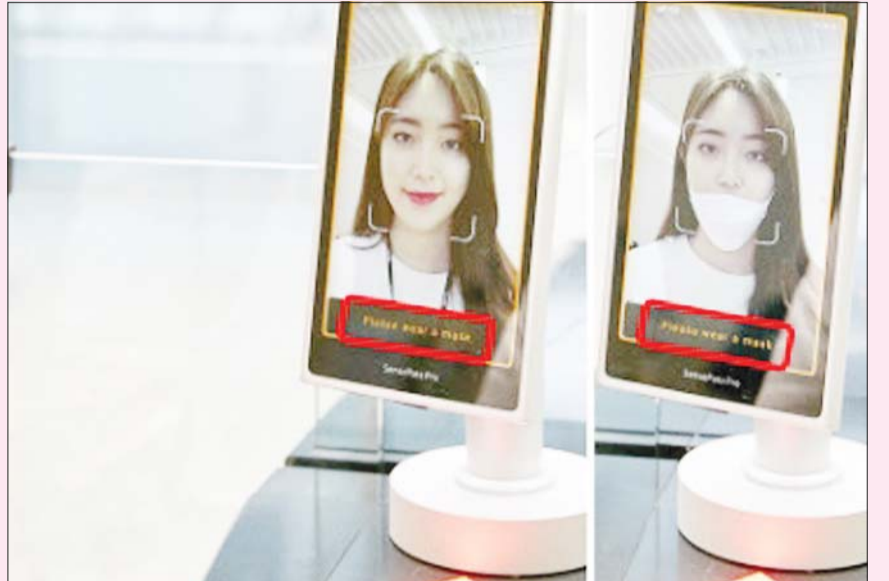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에 위치한 CU 편의점을 방문해 마스크, 초콜릿 등을 고른 후 셀프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안면 인식’ 버튼을 클릭하자 카메라가 1초 만에 내 얼굴을 인식해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안내가 나왔다. 비밀번호를 누르니 5초만에 결제가 끝났다.

다만, 신한카드의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한카드를 지참한 후 한양대 신한은행 내 키오스크를 돌려 페이스페이를 등록해야 했다. 등록 시작을 누르면 이용 동의를 거쳐 카드를 인식한 후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인증(ARS) 중 하나를 선택해야 인증이 완료됐다. 비밀번호 설정 후 진행된 안면촬영도 ‘내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즉시 등록이 완료됐다.

이 같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결제를 하거나 회사 직원이 맞는 지 확인하는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추세와 맞물려 도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또 재택근무로 클라우드 방식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AI 솔루션 분야에서도 월정액 기반 Alass(서비스형 AI)가 속속 등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인 딥아이의 안경 쇼핑물 ‘라운즈’를 시연하는 모습. /딥아이



서울 마곡 LG CNS 본사에 도입된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LG CNS

장하고 있다.

◆AI 얼굴인식 기술, 공항 ‘워크스루’ 등으로 확산

5일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얼굴인식 시장 규모는 2019년 지난해 약 3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얼굴인식해 결제하는 페이 등장 건물 출입, 출결 관리도 얼굴로 마스크 착용해도 식별 문제없어

AI 얼굴인식 기술은 결제는 물론 공항의 ‘워크스루’, 건물 출입시스템, 사람의 이상행동을 감지하거나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 등으로 활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 정확도는 99% 이상으로 사람을 판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에 얼굴인식 기술을 공급한 곳은 알체라.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01초에 불과하다. 알체라는 또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 도입을 위한 ‘워크스루’ 실증 사업에도 얼굴인식 솔루션 뿐 아니라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사용자의 이상행동을 인식하는 이상상황 감

지솔루션을 공급했다. 이 같은 AI 얼굴인식 엔진은 우선 전북은행에 먼저 도입됐으며, 6개 은행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얼굴인식을 통한 출입통제 시스템은 정부는 물론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별도의 카드 키가 필요 없도록 알체라의 워크스루 안면인식을 통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LG CNS도 지난해 마곡 본사 출입 게이트 26곳에 얼굴인식 출입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면 얼굴인식을 해 정보를 조회하고 출입 게이트 개방 여부를 0.3초 만에 결정해준다. 코로나 상황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해도 얼굴을 잘 식별한다. LG전자는 중국 최대 AI 기업인 센스타임과 협력해 얼굴인식 출입통제 솔루션을 개발했다.

LG CNS는 또 본사 구내 식당에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카드를 갖다 댈 필요가 없이 안면인식으로 직원 신원 파악 후 블록체인 기반 지폐 화폐로 자동 결제돼 편리하다.

포스코ICT도 출입 관리는 물론 소액 결제, 출결 관리까지 가능한 안면인식 솔루션 ‘페이스로’를 자체 개발해, 포스코 그룹사의 주요 시설물에 공급했다.

얼굴인식 기술은 안경, 주얼리, 메

이크업 등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에도 도입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딥아이의 안경 쇼핑물 ‘라운즈’에 얼굴인식 AI인 비전 기술을 적용해 얼굴에 맞는 안경을 추천해준다. 블루프린트랩도 얼굴을 스캔해 안경을 추천하는 AR(증강현실) 가상피팅 솔루션을 개발해 유럽과 미국 굴지의 회사에 공급했다.

◆‘클라우드 붐’ 타고 Saas 확산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Saas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앱에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월정액으로 과금되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Saas 월 구독 서비스 인기 이스피커·챗봇 등에 적용 2023년 13조원 성장 전망

AI 솔루션이나 데이터 가공 솔루션을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Saas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Alass’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18년 1조820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3년에는 1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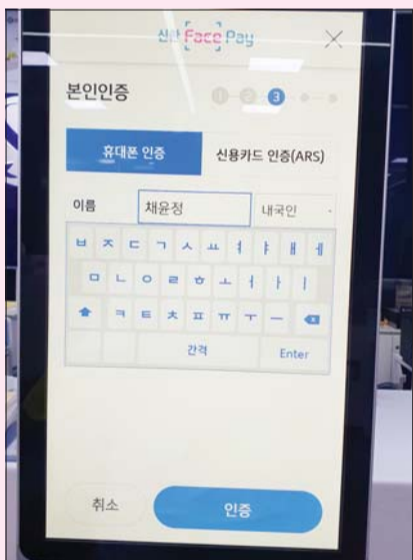
Alass에 가장 빠르게 나선 기업은 마인즈랩으로, 이미 2019년부터 음성·언어·시각·대화·챗봇 엔진 등 AI 플랫폼 개발도구를 한 계정당 월 9만 9000원에 제공하는 ‘마음 AI’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음AI’ 유료 구독자는 이미 1000명을 넘겼다.

AI 대표 기업인 솔트룩스도 최근 ‘AI 클라우드’를 출시해 Alass 경쟁에 합류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합성, 얼굴인식, 챗봇, 지식그래프 등 6가지 영역, 40개 이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I 클라우드는 KT ‘기가지니’ AI 스피커 내 심층 질의응답 서비스에 적용됐다.

와이즈넷은 AI 챗봇을 구축하며 쌓은 노하우로 클라우드형 챗봇인 ‘현명한 엔씨니’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아크릴은 AI 플랫폼 ‘조나단’의 챗봇 서비스와 자연어처리기술, 감성인식 기술 등을 탑재한 AI 컨택센터인 ‘허그봇’을 선보였다.

데이터기업들도 최근 정부가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AI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데이터 라벨링 기업에 AI 가공 솔루션을 제공하는 Saas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가 echo@metroseoul.co.kr



신한은행에 방문해 신한카드의 ‘페이스페이’를 등록하는 모습.

AI 등 ICT 스타트업에 R&D 자금 지원

과기정통부, 전략적 제휴 지원
오늘부터 사업 공고... 6월 선정

정부가 올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고성장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적 협업에 선도적인 ICT 스타트업의 시장수요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와 고성장기업으로의 지원을 위해 ‘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단독

기술개발을 선호해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축적·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효율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신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 수요예측 및 마케팅 테스트가 필요하나, ICT 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사업은 스타트업간 전략적 협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 동력을 확보해 기술 획득, 서비스 확장, 인재 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변화와 수요를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역량을 활용한 선 시장검증 체계의 단계별 R&D(연구·개발)를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6일부터 2월 5일까지 31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스타트업간 기술 제휴, M&A 등 전략적 제휴를 성사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ICT 스타트업으로 자유공모를 통해 총 8개 스타트업을 선발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정부가 과제당 연간 6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2년간 지원하고(총 9억원), 고성장 가능성을 평가 후 선별해 추가 기술개발 자금 6억원을 1년간 지원한다. /채윤정 AI 전문가

“AI 전화’가 통화내역 텍스트로 저장”

아틀라스랩 ‘스위치’ iOS버전 론칭

통화데이터를 실시간 텍스트로 기록해주는 인공지능(AI) 전화 ‘스위치’가 베타 서비스를 끝내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음성인식 AI 전문 기업 아틀라스랩스는 통화 내역을 손쉽게 녹음하고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는 AI 전화 ‘스위치(Switch)’의 iOS 버전을 공식 런칭한다고 5일 밝혔다.

스위치 정식 버전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존 iOS 베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앱을 업데이트하면 즉시 정식 버전으로 전환된다. /채윤정 AI 전문가

아틀라스랩스는 지난해 7월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성능 고도화에 힘써 왔으며, 이번 iOS에 이어 안드로이드 버전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스위치 iOS 정식 버전은 ▲기본 전화 기능은 물론 ▲전화 녹음 ▲통화 내용 실시간 대화형 문자 기록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위치 요금제는 사용자의 전화사용량에 따라 무료 플랜과 무제한 플랜 중 선택이 가능하다. 무료 플랜은 매월 발신 통화 30분에 수신 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무제한 플랜은 발신 및 수신 통화 무제한과 함께 오디오와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채윤정 AI 전문가